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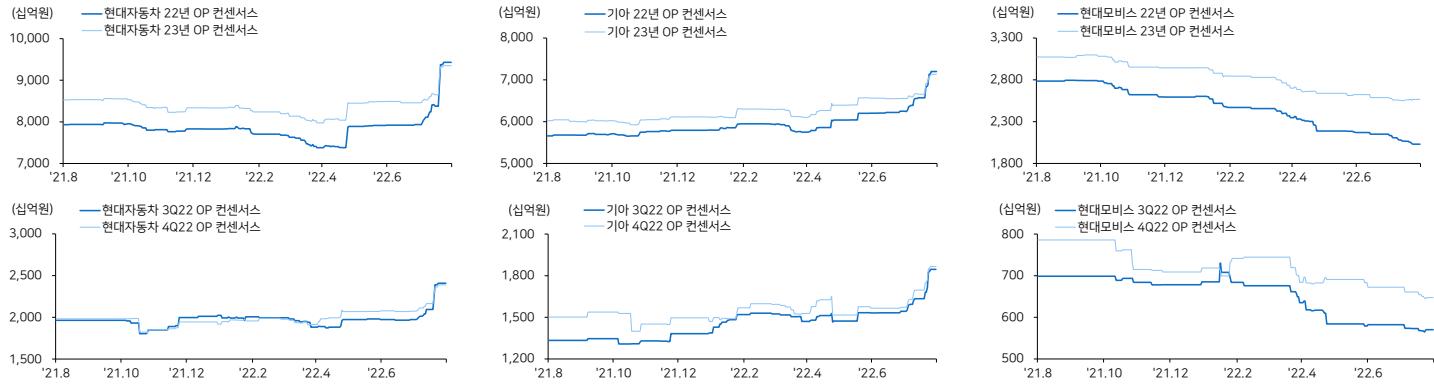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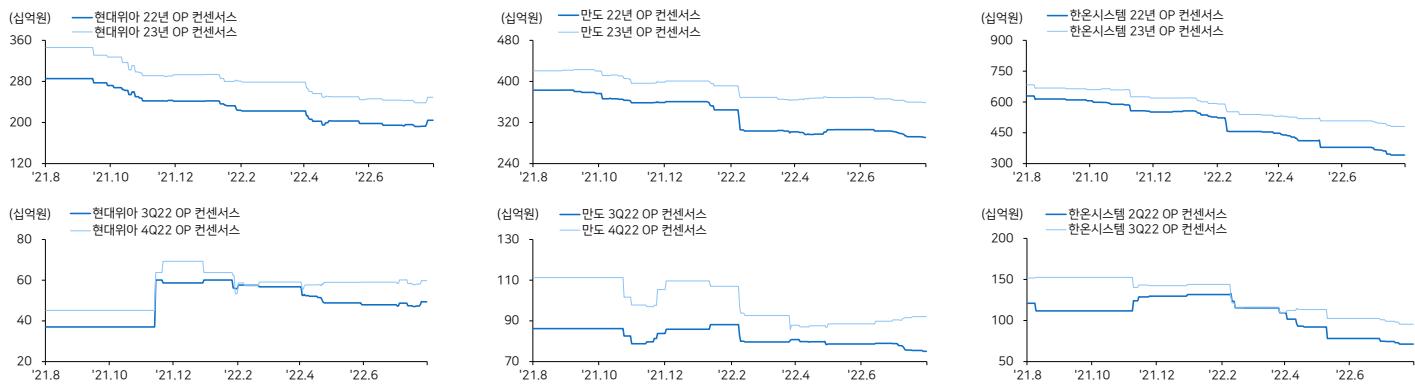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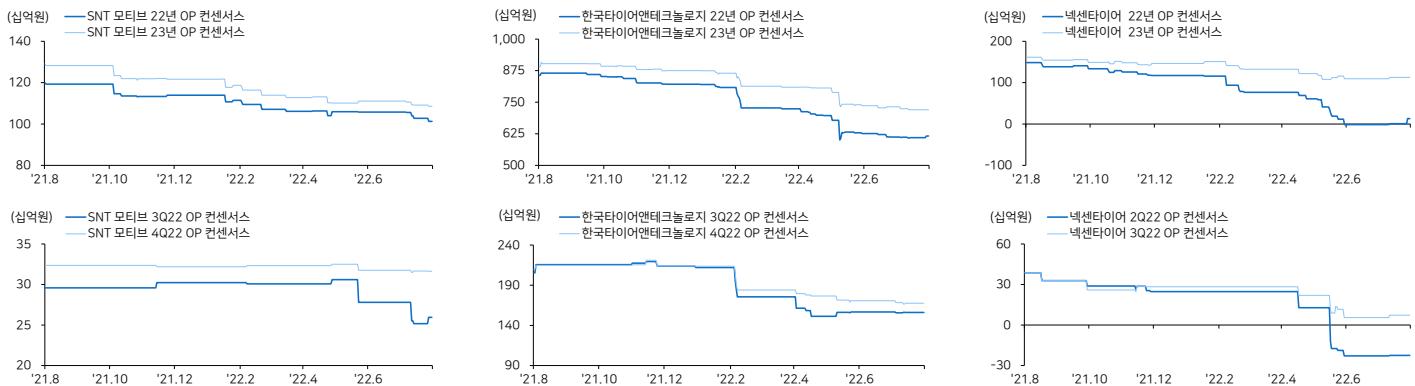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중국산 배터리에 보조금 안 준다는 美… 한국, 인플레감축법에 공식 우려 표명 (국민일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

<https://bit.ly/35V4S9s>

전기차 뜨자 배터리 주원으로 '리튬' 인질로… 속끓는 車업체 (한국경제)

칠레 대통령은 원자재 원가인 리튬을 절감된 정책이라며 리튬을 개발할 국영기업 설립을 추진하면서 '국유화'를 추진 중. 중국, 호주와 함께 세계 주요 리튬 생산지인 님비에서 '리튬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중.

<https://bit.ly/3dpdJzT>

EV maker Rivian beats revenue estimate, expects wider operating loss (Reuters)

리비안은 1분기 1,227대에 이어 2분기 4,467대 차량을 인도, 올해 연간 25,000대 생산 목표를 유지함. 또한 2분기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하였으나 연간 EBITDA 가이드선은 -47.5억 달러에서 -54.5억 달러로 순실 확대를 전망함.

<https://reut.rs/3bU05T3>

Daimler Truck to keep prices high, sees strong 2023 (Reuters)

Daimler Truck은 비용이 하락하더라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일부 공급망 문제가 원활화될 것으로 기대하나 에너지 가격, 중국의 복불 현상 및 침 부족이 올해 하반기로 예상해서 부담이 될 것. 그러나 2023년까지 수요 우려는 없다고 언급.

<https://reut.rs/3Pc7ooE>

美·유럽, 전기차 배터리 원료 확보 '발등의 불' (한국경제)

배터리 자료 시장의 편중성 때문에 납품 방식이든 자체 생산 방식이든 원성자 제조사의 그 어떤 배터리 전략도 성공을 당장 할 수 없는 상황.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배터리 생산 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UBS의 의견.

<https://bit.ly/3AguyfG>

美·中 벌써 무인택시 운행… 한국은 신청업체도 없다 (조선일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약 240대인 반면 미국과 중국은 모두 1,400 대 이상 자율주행 차량을 누비는 중. 웨이모의 누적주행거리는 3,200만 km, 바이두는 2,100만 km를 상회.

<https://bit.ly/3vXDVfV>

CAAM official complains about abnormally high raw material prices for NEVs (CNEV Post)

중국 CAAM은 올해 중국 자동차 산업 매출이 yoy -4% 감소했으나 이익은 -25% 감소하여 전망하지 않으며, 업스트림 기업은 이익이 급증하거나 다른 스트림은 수익창출에 고군분투 중이라 합리적 원자재 가격 책정을 요구.

<https://bit.ly/3dqq6eQ>

China's July NEV sales at 593,000 units, largely flat from June, CAAM data show (CNEV Post)

중국의 7월 NEV 판매는 593,000대로 yoy +120% 증가, mom flat 수준을 유지. 또한 BEV 판매는 457,000대로 yoy +110% 증가. CAAM은 NEV 시장 성장을 전망하나 여전히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https://bit.ly/3vYI12>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